

이해못할 LED산업 정부지원

선도산업 지정 호남권엔 겨우 500억 대구·경북에 1400억 추가지원 계획

호남권 선도사업인 LED산업에 대한 지원이 호남보다도 현 정권의 중심인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면서 광역경제권 육성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적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LED를 호남권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1400억원을 투자, LED 생산부터 응용제품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했

다”며 “2009년에는 LED산업이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LED기술개발을 지원 중이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 덕분에 광주시의 LED 기업체가 2005년 40개사에서 2009년 126개사로 늘어났고, 매출액은 2005년 1371억원에서 2009년 8509억원, 고용인원은 2005년 422명에서 2009년 2505명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비

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경제부는 2009년 6월 경북과 영남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LED-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선정, 앞으로 5년 동안 40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 8월말에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2100억원(국고 1400억원) 규모의 ‘차량인지형 LED 실증단지조성사업’(경북도와 영남대 공동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LED 산업이 광주가 아닌 대구·경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경제권은 그동안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경제정책을 광역권으로 확대, 중북부자와 지나친 권

쟁을 완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경제권의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였는데 지식경제부의 정책은 180도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 의원은 “LED산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에는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면서, 대구·경북에는 무려 1400억원의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LED가 무늬만 호남권 선도산업이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광주지역 LED조명 업체들이 전국적인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광주 LED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호 박삼구회장-베트남 총리 양국 경제교류 협력방안 논의

박삼구(사진 오른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응우옌판중 베트남 총리와 만나 양국간 경제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응우옌수완족 베트남 총리실 장관과 트란트루 푸안 주한 베트남 대사, 금호아시아나 사장단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앞으로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베트남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가 빈중성에 타이어 생산공장 및 고무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금호건설이 호찌민의 주거단지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그동안 베트남 진출을 활발하게 해왔다.

또 지난 2007년부터는 ‘금호아시아나 베트남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 베트남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문화·예술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해 7월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지 15개월만인 지난 1일 그룹 회장직에 복귀해 G20 비즈니스 서밋 환영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대외의정을 소화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러 시장 순항 올 8만7345대 판매 2위

기아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 11일 유럽기업연합회(AEB)에 따르면 기아차는 올 들어 10월까지 러시아에서 작년 동기(5만4869대) 대비 59% 증가한 8만7345대를 판매, 단일 수입업체 중 시보레(9만1천383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프라이드(수출명 리오, 2만4832대), 씨드(2만2032대), 스포티지(1만6847대) 등이 꾸준하게 판매됐다. 기아차는 볼보 4038대 앞서고 있는 시보레와 연말까지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르노(7만5158대)가 판매량 3위를 차지했고, 이어 포드(6만9885대), 현대차(6만9152대), 도요타(6만2706대), GM대우(6만1237대), 닛산(6만142대), 폴크스바겐(4만5516대) 순이었다.

/*연합뉴스

금호 초고성능 타이어 크라이슬러 ‘체로키’ 장착



금호타이어는 11일 크라이슬러의 2011년형 지프 ‘올뉴 그랜드 체로키’에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 금호타이어가 장착된 ‘올뉴 그랜드 체로키’는 유럽을 포함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100여개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올 뉴 그랜드 체로키’는 265/60R18과 265/50R20 등 두 가지 규격의 초고성능 타이어(UHP)가 장착된다. 특히 이 제품들은 고무에 실리콘을 배합해 빗길 성능 강화 및 회전저항을 감소시켜 연비를 개선했으며, 핸들링 성능 및 소음 감소 등의 특징이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자체·중기청도 SSM 규제 나선다

광주시의회 조례 제정·관련 시행지침 마련 등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데 이어 지자체와 중소기업청도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책을 잇따라 마련해 SSM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m 이내에는 매장면적 500㎡ 이상의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광주시내 18개 전통시장과 ▲

자동차거리(임동) ▲나무전거리(계림동) ▲전자거리(대인동) ▲건축자재거리(중흥동) ▲공구거리(운암동) 등 5개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내의 범위에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는 대형할인점과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자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내에서 대형할인점과 SSM을 개설할 때 각 구에 설치되는 등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 주변지역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칠 때에는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등록이 거부되면 자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도 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바뀌어도 사업조정대상인 된다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여야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부의 사업조정 지침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

이다.

새 지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등이 직영하던 SSM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변 중소상인들은 이 점포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위탁형 가맹점은 체인형 점포를 열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로 슈퍼마켓이나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이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4곳, SSM 1곳)가 몰려 있는 광주 광산구청도 12일까지 관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과 건축, 축산물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축, 농정, 경제, 청소, 보건위생, 녹색성장 등 6개과 12명이 일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창업 기업 3곳 중 1곳 ‘폐업’

조호권 시의원 주장 ... 최근 5년간 298곳 문닫아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창업한 공장 기업 가운데 ‘3곳 중 1곳’ 꼴로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호권 의원(민주·북구 5)은 11일 광주시 경제산업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공장 폐업 실태를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광주지역 폐업기업은 298개로, 같은 기간 공장 창업기업 784개의 38.0% 규모에 달하고 있다.

공장 창업기업 규모별 구성비율은 소기업 752개(98.6%), 중기업 32개(4.1%)였으나 폐업기업은 소기업 294개(98.6%), 중기업 4개(1.4%)로 소기업의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장 폐업기업의 종업원 수는 249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소기업은 2092명(83.7%), 중기업은 406명(16.3%) 등이었다.

조 의원은 “공장 창업기업의 3곳 중 한 곳이 폐업을 하고 있어 창업

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폐업기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금 확보 등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위해 시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리로광통신 평동산단 신공장 준공

칩·모듈 본격 생산

광주 광산업체 1호 기업으로 출발한 우리로광통신(주)이 평동 2차산업단지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리로광통신(주)은 강은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12일 오전 11시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한다.

평동 신공장은 1만3418㎡의 부지에 115억원을 투입해 공장 설비를 준공해 광통신 부품제조에 필수적인 본딩과 칩, 모듈을 생산할 예정이다.

우리로광통신은 1998년 말 설립됐으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초소형 광분배기를 개발, 일본과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14.73 (-53.12)
코스닥지수	524.05 (-4.22)
금리 (국고채 3년)	3.48% (-0.03)
원·달러 환율	1,107.90원 (-2.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영어 배워요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뉴질랜드교육문화원(NZLES:New Zealand Life Education Service, www.nzles.com)과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 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
기존 '해외외형' 연수가 아닌, 새하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현지실력을 키운다.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 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
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 내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 교사가 주 1회 가정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
- 특징 3** 연수생 인건에 만전
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지 학교 교직원과 NZLES 교직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

연수기간 | 2011년 1월 30일 ~ 2월 26일
연수지역 | 오클랜드 북부 Whangaparaoa
연수학교 | StanmoreBay School (www.stanmore.school.nz)
GulfHarbourSchool (www.gulpharbour.school.nz)
연수대상 | 초등 4~6학년, 중학생 1~3학년
연수인원 | 선착순 60명(심층면접후 실력고려 학년 배치)
신청마감 | 2010년 12월 10일
문의 | 062-220-0641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NZLES·AK WORLDLINE